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3호 【루계 제25977호】 주체107(2018)년 4월 13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에 즈음하여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당신께서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당신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2018년 4월 11일 디마스끄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과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냥 워라칟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2일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인 마흐무드 아바스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2일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 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알렉쎄이 표지쯔끼위원장이 12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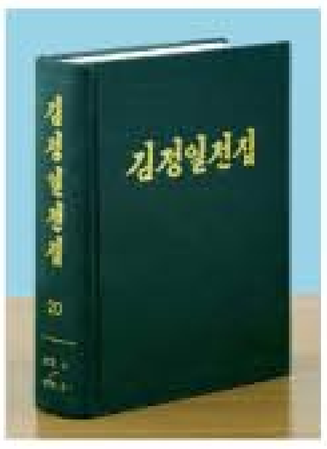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12일 외교단 단장인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본사기자

# 《김정일전집》 제20권 출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년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수록한 영생불멸의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김정일전집》 제20권을 출판하였다.

전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62(1973)년 4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력사적인 담화를 비롯한 24건의 고전적로작들이 수록되여있다.

로작들에는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며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현명성이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과 근본문제를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새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이며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종자를 바로 골라잡고 그것을 잘 가꾸는 문제, 촬영과 영화미술을 우리 식으로 창조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등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혁명가극창조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발전시켜 문학예술전반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훌륭하게 완성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들에 제시되여있다.

로작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을 통하여 학생들을 견결한 혁명전사로 준비시키자》**에는 조선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은 혁명의 천리길이며 학생소년들이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게 충직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해나갈데 대한 내용들이 서술되여있다.

김일성정치대학에서 당에 끝없이 충실하고 쓸모있는 산지식을 소유한 유능한 정치일군들을 키워내며 대학의 모든 사업을 학생들에게 교육이 될수 있게 조직진행해야 한다는 사상이 로작 **《김일성정치대학에서는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유능한 정치일군들을 키워내도록 하여야 한다》**에 담겨져있다.

**《평안남도 숙천군 열두삼천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평안남도 대동군 연곡리 농촌문화주택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를 비롯한 로작들에는 일군들이 농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배려를 잘 알도록 교양사업을 잘하고 농촌수도화와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간석지개간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농촌문화주택건설을 빠른 기간안에 끝내면서도 그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 **《당일군들은 로숙하고 세련된 사업방법과 작풍을 가져야 한다》**, **《당일군들은 지도사업을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에서 모든 당일군들이 당사업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사업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로작들에는 당일군들이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사업과 생활을 돌봐주며 간부들의 당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천명되여있다.

전집에는 이밖에도 나라의 귀중한 재보인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관리하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어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설레이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에 뚜렷한 해답을 주는 로작들이 들어있다.

《김정일전집》 제20권에 수록된 로작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고무적힘을 안겨주는 전투적기치로 된다.

#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

## 수여모임 진행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이 모범적인 초급청년동맹위원회들과 청년동맹일군들, 청년동맹원들, 소년단원들에게 수여되였다.

수여모임이 12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들이 전달된 다음 우리 당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청년동맹조직을 강화하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였으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위훈을 떨친 9개의 초급청년동맹위원회들과 29명의 청년동맹일군, 청년동맹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이 수여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지덕체를 갖춘 유능한 혁명인재,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하여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108명의 소년단원들이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받았다.

수여모임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펄펄 휘날리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조선의 참된 청년전위, 사회주의조국의 억센 기둥감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영원한 그리움속에 만발하는 태양의 꽃

## 태양절경축 제20차 김일성화축전 개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제20차 김일성화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불멸의 꽃축전사에 스무번째의 년륜을 아로새기며 진행되는 이번 축전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마음이 펼친 위인칭송의 대화원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깊이 새겨주는 대정치축전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일념을 안고 우리 인민은 태양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데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영상이 축전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우리 수령님 그리워 더욱 붉게 피어난 김일성화》라는 주제로 열린 축전에는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을 비롯한 80여개 단위와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정성껏 피운 수만상의 김일성화들이 전시되였다.

또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와 해외동포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 개별적인사들의 뜨거운 지성이 어린 불멸의 꽃들이 축전장에 전시되였다.

축전개막식이 12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축전조직위원회와 태양의 꽃을 전시한 단위 일군들, 인민군군인들,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해외동포대표단, 동포들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성원들, 불멸의 꽃 보급후원회 회원들,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개막식은 시작되였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 김창도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이 혁명의 수도 평양으로 달려오고있는 뜻깊은 4월의 명절을 맞으며 제20차 김일성화축전을 성대히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만민의 열화같은 흠모심에 떠받들려 태어난 김일성화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태양의 꽃, 위인칭송의 꽃이라고 하면서 그는 불멸의 꽃에 대한 매혹과 경탄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는 김일성화축전과 함께 전국각지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김일성화전시회가 진행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칭송과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뜨겁게 굽이쳐흐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축전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두터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제20차 김일성화축전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밤방 히엔드라스토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53년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신 김일성주석님께 탄생일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전 대통령 수카르노각하가 김일성화로 명명한 진귀한 꽃을 선물로 올린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화축전이 20년동안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가》주악으로 끝났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태양의 꽃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
# 삼가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저희들은 귀국의 수도 평양에서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기간에 진행된 시대와 음악예술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2018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존경하는 각하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우리들은 콩클기간에 당신께서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의사에 따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6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김정은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들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지니신 비범한 음악적천품에 매혹되었으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음악예술에 관한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현시대의 음악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높은 수준에서 론의하였습니다.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과 국제음악토론회 참가자들은 평양체류의 나날 조선의 놀라운 기적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는것을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의의있게 진행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감을 가지면서 세계의 진보적음악예술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인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과 국제음악토론회가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조선에서 진행하는 평양국제성악콩클에 계속 참가하여 인류의 성악예술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예술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입니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친근한 조선인민이 자신이 선택한 자주의 길, 주체의 한길을 따라 변함없이 곧바로 전진하며 조선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각하를 높이 모시여 조선인민은 반드시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존엄높은 강국을 일떠세울것입니다.

존경하는 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김정은각하께 다시한번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 시대와 음악예술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2018 참가자일동**

2018년 4월 12일 평양

---

#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우리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40돐 기념보고회를 몽골에서 성과적으로 진행한 기쁨속에 각하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일치하고 열렬한 념원을 담아 1978년 4월 9일 일본의 도꾜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되였으며 그후 대륙별, 나라별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출현하고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광범한 인민들에 의해 주체사상신봉자대오가 형성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들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풍부화하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으며 그 과정에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은 더욱더 성장하고 강화되였습니다.

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유훈을 관철하는 투쟁을 힘있게 령도하시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심으로써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사회주의 조선을 빛내이고계십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계승하신 각하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크게 변화발전하고있습니다.

각하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국력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들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이끄심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은 확고히 담보되였습니다.

각하께서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신것은 세계를 경탄케 하였으며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사회주의길로 곧바로 나아가는 조선은 세계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며 우리들에게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전진할수 있게 하는 용기와 힘을 안겨주고있습니다.

반제자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사상리론적 기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입니다.

세계를 자주화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선행과제로 나서는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깊이 연구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구현하는것입니다.

우리들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결의를 다짐니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언제나 건강하시여 사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참가자일동**

2018년 4월 8일 울란바따르

---

# 태양조선의 앞길 끝없이 창창하다

4월 13일.

이날은 태양조선의 력사에서 참으로 의의깊은 날이다.

26년전 이날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그이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삼가 드리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해인 6년전 4월 13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공화국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대경사로 세계를 진감시켰다.

복중의 복인 수령복, 장군복을 대를 이어 누리는 희열과 긍지, 창창한 래일에 대한 락관으로 우리 인민 모두의 가슴을 한껏 부풀게 하는 뜻깊은 경사의 날이다.

산천초목도, 동서해 푸른 물도 끝없이 설레이는 이 시각 천만군민의 심장은 무엇으로 하여 그처럼 뜨겁게 불타고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력사입니다.》**

흘러온 력사를 더듬을수록 만민이 우러러따르는 희세의 천출위인들을 대를 이어 모시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광넘친 어제와 오늘, 래일이 있다는 확신으로 천만의 심장 세차게 높뛴다.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어버이수령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 그날의 환희가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우리 수령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것은 력사의 칭송이고 인민의 의지였으며 시대의 요구였다.

돌이켜보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탓으로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비참한 식민지약소민족이 바로 한세기전 우리 민족의 모습이였다.

파란많은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이고 혁명의 승리라는 철리를 밝히시고 무장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였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을 높이 모시여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군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였다.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력한 주력부대로, 조선혁명의 핵심력량으로 키우시여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며 날뛰던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령님.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정규무력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여 100여년의 침략전쟁력사를 자랑하는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20세기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 길이 빛날것이다.

장구한 혁명활동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시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세계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힘이 약한탓에 피비린 전란을 겪고 수난과 치욕을 강요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보며 우리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위한 억척같은 담보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절감하며 수령님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력사에 군사명관들이 많았어도 우리 수령님처럼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기적을 창조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은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이끈 많은 국가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혁명활동의 전기간 혁명무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여 귀중한 유산으로 물려준 령도자는 없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찬 력사와 불패의 위력, 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술적우세와 위협공갈에 철추를 내린 우리 나라의 강위력한 국방공업, 그 모든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바로 그 거대한 공적으로 하여 26년전 4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삼가 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령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여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만년기틀을 마련해주신것은 조국과 민족앞에 쌓으신 업적중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어느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희세의 명장, 무적의 장군으로 세계를 진감시키시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반복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우리 나라에 또 한사람의 장군, 김정일장군이 있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항일대전의 총성을 들으시며 명장의 슬기와 담력을 키우시고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작전대절에서 필승의 지략과 령군술을 익히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혁명무력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지난 세기 90년대 시련의 먹장구름이 배회할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반제반미대결전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인민의 생명인 주체의 사회주의와 나라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시였으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시는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 이것은 사실상 류례없이 엄혹하고 치렬한것이였다.

그러나 강철의 명장을 모신 조선에서는 련전련승의 축포가 울렸다.

불패의 선군정치로 우리 혁명무력을 정치사상강군, 일당백의 무적강군으로, 우리의 국방공업을 현대적인 군사장비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혁명의 병기창으로 억척같이 다져주신 불세출의 선군령장,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거대한 력사적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참으로 그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일떠세워주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강성번영에로 전진시켜주신 위대한 령장이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그렇듯 불멸할 공적을 쌓으시고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허용치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복차림을 하시는것마저 굳이 사양하시였다.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대원수복을 보며 힘을 얻겠다고, 자신의 어깨우에 빛나는 원수별보다 인민들의 가슴에 빛나는 영웅메달이 더 귀중하고 크다고 하시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지니시고 끝없는 애국헌신의 장정을 수놓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시고 탁월한 정치가이시며 장군중의 장군이신 그이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해온것은 천만년 노래할 우리 인민의 영광이며 긍지이다.

주체101(2012)년 4월 13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안고 그이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는 민족사적인 경사를 맞이하였다.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중대한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이 받아안은 또 하나의 최대의 행운, 최상의 영광이며 태양조선의 양양한 전도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대경사였다.

우리 민족이 맞이한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장군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그이를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국력은 그 얼마나 최상의 높이에 올라섰는가.

만난시련을 헤치시며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무한한 활력에 넘쳐 날을 따라 약동하는 우리의 조국.

진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시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격동의 시대, 인민의 꿈과 리상이 나날이 꽃펴나는 공화국의 최전성기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곳곳이 걸어온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행군길에서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위대한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는 무한한 긍지와 행복감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특출한 안목, 굳센 담력과 배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있기에 위대한 조선인민의 앞길이 그리도 밝고 창창한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승리이다.

그이 계시여 태양조선의 백전백승의 력사는 최후승리에로 줄기차게 흐를것이다.

이것이 4월의 이 경사스러운 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더욱 굳게 간직하는 철의 신념이며 필승의 락관이다.

본사기자 김성남

---

## —4월의 봄날이 전하는 이야기들—

### 뜻깊은 기념사진

주체81(1992)년 4월에 있은 일이다.

일군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 대원수복을 입으신 그이의 모습을 뵙고싶어하는 인민들의 절절한 소망에 대하여 여러차례 말씀올리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양하군 하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일군들은 자기들과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또다시 정중히 아뢰이였다. 그 뜨거운 마음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는 거절할수 없으시였다.

4월 2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수복을 입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대원수별이 빛나는 군복을 입으시니 절세의 위인,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수령님의 위인상이 더욱 빛발쳤다.

영광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가 되였는데 오늘은 대원수와 보초병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이 기쁜 날에도 병사들을 먼저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웅심깊은 사랑에 일군들은 목이 꽉 메여올랐다.

이윽고 보초병의 근무까지 교대시켜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진을 어디서 찍는것이 좋겠는가고 하시며 살구꽃이 활짝 핀 곳에 자리를 잡으시고 보초병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초병과 함께 찍으신 기념사진.

그 뜻깊은 기념사진은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한분이신가에 대하여, 그이께서 병사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였는가에 대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것이다.

### 확고한 결심과 의지의 선언

주체97(2008)년 4월 9일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에게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넘겨주신 날이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에게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넘겨주신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시면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그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일군들에게도 잊지 못할 사연들이 추억깊이 돌이켜졌다.

조국과 민족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면서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지시였으며 강력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시였다.

정녕 우리 조국에 마련된 그 모든 경이적인 성과와 사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결실인것이다.

이런 추억에 잠겨있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모든것은 수령님께서 혁명무력건설과 국방공업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쌓으신 위대한 업적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앞에 일군들은 경건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이윽고 백두령장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장내에 울리였다.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려는 적들의 그 어떤 시도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것이며 우리 조국은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그 위용을 높이 떨쳐갈것입니다.

뜻깊은 4월의 봄날에 울린 강철의 령장의 엄숙한 선언.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선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노도처럼 전진하는 인민의 가슴에서 불멸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

# 시대와 음악예술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2018 진행

【평양 4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시대와 음악예술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2018이 1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문화상 박춘남동지, 문화예술부문 일군들, 창작가, 예술인들, 예술교육기관 교원, 연구사들과 콩클국제심사원, 명예손님들,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여러 나라의 예술단, 대표단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축하발언에 이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음악은 인간학이라는 사상은 음악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한 탁월한 사상》, 《조선의 가극은 절가화된 새 형의 가극》, 《음악은 우리 령성의 숨쉬는 넋》, 《성악예술에서의 민족성구현에 대하여》 등의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음악의 본성과 사명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음악예술을 인간학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신 사상리론의 탁월한 거장이시며 희세의 음악정치가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음악예술사상과 리론의 과학성, 정당성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하였으며 성악작품에서 가사와 선률의 호상관계, 음악형상세계를 높은 경지에 올려세운 우리 식 가극창조의 귀중한 경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현시기 음악창조에서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성악가들이 올바른 미학관을 지니고 예술형상에 자기 민족의 감정정서와 현대적미감을 잘 반영하여야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토론회는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의 민족예술에 대한 리해를 풍부히 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의의있는 계기로서 국제적인 예술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인류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

#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온 세계의 자주화의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

##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40돐 기념행사 몽골에서 진행

【평양 4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40돐 기념보고회가 8일 몽골의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사무국장, 리사들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 몽골, 일본의 사회계인사들 그리고 몽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의 개회사로 시작된 보고회에서는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조선사회과학자협회에서 보내온 축전들이 소개되였으며 리사장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의 보고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은 시대의 요구와 인류의 념원에 부합되는 응당한 결실이며 그 의의는 지난 40년 력사를 통하여 확증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지난 세기 말엽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좌절과 그를 기화로 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 신념이 없는자들의 배신행위로 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활동에서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부닥치는 도전과 난관들을 과감히 헤쳐나가면서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변함없이 벌려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40년 행로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사상의 정당성이 힘있게 과시되고 그 견인력이 날로 증대되여온 자랑찬 로정이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오늘날 인류는 오로지 김일성-김정일주의만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길,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의 길, 온 세계의 자주화의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라는것을 현실을 통해 깊이 절감하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연구소의 지위와 역할을 보다 강화하며 시대적요구와 진보적인류의 념원에 맞게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40돐 기념행사가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한편 이날 저녁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40돐을 축하하는 연회와 예술공연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이에 앞서 7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제2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기간의 사업정형이 총화되고 지역별, 나라별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실정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사업계획들이 토의되였다.

#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로 혁명을 전진시켜오신 절세의 위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온 나라 일터마다에서 높이 울려퍼지는 자력갱생의 동음, 증산의 동음은 곧 사회주의전진가이다.

오늘의 총공세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주체적인 공격전술의 빛나는 구현이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한평생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켜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 절감하고있으며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답게, 수령님의 혁명령도사를 배우며 성장한 긍지높은 세대답게 제국주의자들의 단말마적인 반혁명적공세를 혁명적공세로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총진군을 더욱 다그쳐나가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 일생의 총적지향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할수 있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로 한생을 살아왔다.》**

혁명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다. 력사의 온갖 도전과 풍파를 헤쳐야 하고 때로는 희생도 각오해야 하는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투쟁방식에 관한 문제는 그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요인이다. 아무리 올바른 투쟁목표를 내세웠다 하더라도 투쟁방식을 정확히 선택하지 못하면 혁명은 침체와 좌절을 면할수 없다.

가장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혁명방식, 투쟁방식은 공격전이다. 그것은 적들과의 첨예한 군사적대결에서도 위력하고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하는 거창한 창조투쟁에서도 우월하다. 엄혹한 난관에 포로되여 방어에만 급급하는 사람에게는 열려진 문도 벽으로 보이지만 공격정신이 강한 사람에게는 담벽도 문으로 보이게 된다. 대담하고 완강한 공격전은 혁명과 건설의 어느 한두 전선이 아니라 전전선에서 최대의 속도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투쟁방식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독창적이고 신비한 공격전술을 명활하게 구현해오신 공격형의 위인이시다. 피어린 항일대전과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는 과감한 공격전으로 숨져가던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반제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시였으며 빈터와 페허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령도자욱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혁명의 승리적개척과 전진을 안아오는 명활한 공격전술은 어느 정치가나 다 구사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걸출한 위인만이 펼칠수 있는 전략전술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는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만이 실현할수 있는 투쟁방식이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을 되새겨볼 때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투쟁해왔는가 하는데 대하여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언제나 과감한 공격전술로 부닥치는 난국을 뚫고 시련의 고비들을 혁명의 일대 고조기로 전환시키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항상 반혁명세력의 발악적인 도전과 무수한 난관을 동반하는 법이다. 하지만 장구한 세계혁명운동사는 조선혁명처럼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을 알지 못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항시적으로 제국주의강적과 맞서싸우며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하여야 했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모든 시련과 난관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강철의 담력과 명활한 공격전술에 의하여 타개되여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전진도상에 아무리 엄혹한 시련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한걸음의 후퇴도, 순간의 동면도 몰라야 하며 오직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드팀없는 의지였고 숭고한 혁명철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추켜들고오신 붉은기에는 이 혁명철학이 깃들어있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전략전술에도 이 신념이 관통되여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오른 준엄한 시기에 동지 몇사람과 두자루의 권총을 가지고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백만대군과 전면전쟁을 선포하신것은 희세의 공격형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단행하실수 있는 영웅적장거이다. 바로 그때로부터 담대한 배짱으로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조선혁명의 장엄한 공격전의 력사,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이 자랑스러운 투쟁행로에는 적들의 2중3중의 포위, 혹심한 추위와 식량난을 이겨내고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올린 고난의 행군도 있었으며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가 적국의 우방이 된》예상치 못한 1941년도의 돌풍속에서 자력해방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최후결전의 날을 향해 힘차게 돌진한 의지전도 있었다.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이 없었다면 조선혁명은 일제의 반혁명압살광풍속에서 열백번도 더 지리멸렬되였을것이다.

혁명의 원쑤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시련이 엄혹할수록 맞받아나가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확고부동한 투쟁방식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적들의 허를 찌르는 신묘한 공격전술로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시고 반제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할수 있은것도, 《푸에블로》호사건을 비롯한 적들의 온갖 도전과 침략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은것도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담무쌍한 공격전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이야말로 막아서는 엄혹한 시련의 고비들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명활무쌍한 공격전술이 응축되여있는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혁명의 대백과전서이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의 특출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과감한 공격전술로 방대하고 거창한 력사적과제들을 빛나게 수행하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낡은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인류력사발전과정에서 가장 폭넓고 심각한 사회적변혁이다. 사상과 정치,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력사적오물을 청산하고 자기 발전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여야 하는 사회주의위업은 필연코 방대한 과제들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으며 나라가 해방과 함께 분렬되고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된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는 조선혁명가들앞에는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아름찬 력사적과제들이 제기되였다. 우리의 부강조국건설은 하나부터 열, 백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빈터에서 시작해야 하는 가장 어렵고 지난한 대업이였으며 내외원쑤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야 하는 가장 첨예하고 복잡한 계급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수많이 제기된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앞에서 순간도 비관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시였으며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로 건당, 건국, 건군을 비롯한 모든 력사적과제들을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주타격방향, 중심고리를 정확히 설정하고 거기에 력량을 총집중하여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공격전술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전반사업을 추켜세워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해방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전체 인민의 애국열의를 최대로 분출시켜 어렵고 복잡한 새 조국건설전반을 힘있게 추진시키신데서도 절감할수 있고 전후복구건설시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여 다른 나라들에서는 한세기 지어 수세기가 걸린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자체의 힘으로 불과 14년동안에 수행한 기적적인 승리에서도 새겨안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활한 공격전술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립체전, 전격전, 련속공격전이라는데 있다. 남보다 뒤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한 우리가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백걸음, 천걸음으로 내달리고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더욱 박차를 가하여 보다 큰 새로운 승리를 끊임없이 쟁취할 때에만 하루빨리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신 천리마의 정신, 계속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공격적인 혁명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정력적인 령도는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당, 정권, 군건설과 함께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다관이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신데도 어려있고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며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우에서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혁명적조치들을 취해주신데도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으켜주신 천리마운동의 불길은 우리 나라에서 세계가 경탄하는 사회주의건설속도가 창조되게 한 원동력이였다. 공격형의 령도자를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두차례의 복구건설과 두단계의 사회혁명,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식민지약소국이였던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빈 금고와 장부밖에 없던 우리 나라에 고귀한 사회주의재부들을 가득 채우시고 주체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만년토대를 튼튼히 다져주신 건국시조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혁명의 전취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재부들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빛내여갈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로 준엄한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오실수 있은 중요한 비결은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더없이 투철하신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 혁명위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에 뿌리를 두고있다.

혁명의 개척과 전진도상에 부닥치는 모진 시련과 난관을 강행돌파하고 방대한 력사적과제들을 수행해나가는 과감한 공격전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희생적헌신에 의해서만 전개되고 승리할수 있는 애국애족의 정화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혁명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고 수호하기 위한 신성한 위업이고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는 철저한 자력의 대업이였으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돌진해야 하는 불굴의 투쟁이였다. 최악의 역경이 가로놓일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으면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는 자각, 우리앞에 부과된 시대적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한줌 흙으로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인민앞에 불효자가 된다는 사명감, 우리가 강행군을 하면 그만큼 혁명의 전진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고결한 희생정신,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전생애가 완강한 공격전으로 관통되게 된 근본요인이였다.

시련이 가중될수록, 방대한 일감이 겹쌓일수록 위대한 수령님의 담력은 비상히 억세여지고 혁명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해방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로 쉬임없이 찾으신 2만 600여개의 현지지도단위들과 144만 5 000여리에 달하는 장정에는 완강한 공격전으로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다져주신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가 깃들어있다. 령도자로서,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면서도 자신보다 먼저 조국과 인민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 높은 책임감에 떠받들려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해온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은 자기 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 바탕을 두고있다.

과감한 공격전은 자기 힘을 믿는 강자의 고유한 투쟁방식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인민대중이며 위대한 사상으로 무장하고 일심단결된 인민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인민을 믿고 그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한다.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령도의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신 신조이고 좌우명이였다. 일찌기 혁명의 개척기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고귀한 진리를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시련이 겹쌓일 때마다 인민을 믿고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힘과 용기를 얻고 난국을 뚫고나가시였다. 그처럼 어려웠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신포항영웅을 비롯한 락원의 10명 당원들은 불비속을 헤치고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가 싸워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전쟁이 끝나면 또 복구해가지고 잘살수 있으니 너무 근심하지 마시라고 말씀올려 커다란 힘을 드리였으며 전후 강선의 로동계급은 강재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절절한 호소를 받들고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여 강철로 당중앙을 옹위하였다. 준엄한 날에도, 평범한 날에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당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위대한 인민, 당의 사상과 로선을 헌신적투쟁으로 결사관철하는 강용한 인민, 이런 인민과 함께라면 천리불바다도 헤쳐갈수 있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였다. 언제나 인민과 한덩어리가 되시여 끝없는 공격전으로 만난시련을 뚫고 혁명을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령도사야말로 참다운 인민적수령의 력사이다.

조선혁명은 대를 이어 공격형의 위인을 진두에 높이 모시여 백승의 력사만을 아로새기는 영광스러운 혁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은 우리 혁명의 전행정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왔으며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지금 우리 혁명대오에 맥박치는 불굴의 투쟁정신은 끝없는 공격사상으로 일관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며 우리 조국의 진군속도는 승리에서 더 큰 승리, 비약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룩하며 세월을 주름잡는 만리마의 속도이다. 천리혜안의 과학적통찰력과 억척불변의 사회주의신념, 무비의 담력과 배짱, 특출한 대중동원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 민족사적인 대사변들이 련이어 펼쳐지고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가 비할바없이 높아져 민족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세계가 공인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특출한 령도력은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리키신 주체혁명의 한길을 따라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다.

조학철

# 한없이 고결한 풍모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속에 해가 뜨고 날이 저무는 우리 조국의 4월.

뜻깊은 4월의 봄을 맞이한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한없이 숭고한 위인적풍모로 만민을 감동시키신 어버이수령님의 성스러운 력사가 더욱 뜨겁게 새겨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풍모에 있어서나 인간적풍모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최고인민회의 제3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던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이날 선거장으로 향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한 일군에게 자신의 공민증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누구라없이 못박힌듯 굳어졌다.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도 높이 우러러받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민증을 지참하지 않으신들 그 누가 그이를 알아뵙지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일군은 그이께 선거장에 공민증을 가지고가지 않으셔도 일없지 않겠는가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도 공화국공민인데 나라에서 제정한 법을 자신부터 먼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고,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자신을 인민들우에 있는 별다른 존재라고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선거장에 공민증을 가지고가자고 뜨겁게 이르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어리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뇌리에는 문득 그 누군가가 들려준 하나의 잊지 못할 이야기가 떠올랐다.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서군(당시) 청산리에 있는 한 약수터에 들리시였다.

당시 마을에서는 래왕이 많은 이곳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약수터앞에 솔문을 만들어세우고 그앞에 경비원까지 세워놓고있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잠시 약수터주변을 둘러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비를 서고있는 농민에게로 다가가시여 수고한다고 다정히 인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미처 알아뵙지 못한 그 농민은 그이께 미안하지만 증명서를 좀 보여주실수 없는가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증명서말입니까라고 하시며 그에게 자신의 증명서를 꺼내보이시였다.

증명서를 받아들고 들여다보던 농민의 눈은 대번에 화등잔만 해졌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자기들에게 땅을 분여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의 존귀하신 존함이 새겨져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죄송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하는 농민의 두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경비를 잘 서고있다고,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는가고 물으신 다음에야 약수터안으로 들어가시였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 사이에 위대한 수령님의 공민증을 가지러 갔던 일군이 돌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가져온 공민증을 받아드시고 확인하신 다음 그것을 소중히 품안에 넣으시였다.

이날 선거장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곳 일군들에게 공민증을 보이신 다음 투표에 참가하시였다.

언제나 자신을 인민의 한 성원으로 여기시고 인민과 꼭같이 생활하시는것을 철칙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

정녕 우리 수령님의 혁명생애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한없이 고결한 인민적수령의 위대한 한생,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평민의 한평생이였다.

본사기자 정순학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 길이 전하며 솟아 빛나는 주체사상탑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 김영남동지가

##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바꾸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
**일함 알리예브 각하**

나는 당신이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과 아제르바이잔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7(2018)년 4월 12일 평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 오스트리아로조련맹 좌익빨력 련방비서에게 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오스트리아로조련맹 좌익빨력 련방비서에게 수여하는 의식이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다.

수여식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정영국동지,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우리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한 올리베르 요니스카이트 오스트리아로조련맹 좌익빨력 련방비서에게 친선훈장 제2급이 수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참된 인민관을 새겨준 협의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의 생애에서 사상과 실천의 중핵을 이룬것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복무정신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6월 어느날이였다.

김책시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며 시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시였다.

현지에서 일군들은 물론 로동자들과도 허물없이 담화를 하시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책시로동계급이 생활에서 애로를 느끼고있는 문제를 료해하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날 오후 시안의 당, 근로단체, 정권 및 경제기관 지도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협의회에서 먼저 여러 공장들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문제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의 책임일군에게 지금 수도화공사를 어떻게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선뜻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시에서 오래전부터 진행해온 로동자들의 주택구역에 대한 수도화공사는 자재가 부족하여 전망을 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큰 제강소를 가지고있으면서도 로동계급에게 먹는물 하나 똑똑히 공급하지 못하면 그들이 좋아할리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강관과 용접봉만 대주면 되는 일인데 무엇이 힘들어 지금까지 못하고있는가고 못내 안타까와하시였다.

일군은 자책감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 없었다.

사실 수도화공사에 필요한 강관과 용접봉같은 자재들은 시안에 큰 공장, 기업소들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는것이였다. 시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일군들의 인민에 대한 견해와 관점에 관한 문제였다.

이윽고 수도화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낼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수도화공사를 다그쳐 물때문에 고생하는 로동계급과 그들의 안해들의 수고를 덜어주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일군은 빠른 기일내에 수도화공사를 다그쳐 끝내여 성강로동계급뿐아니라 시안의 모든 주민세대들에 대한 물공급을 정상화하겠다고 결의다지였다.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시는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어 시민들의 교통문제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당시 김책시에서는 주민지역과 공업지구와의 거리가 멀어 교통조건이 불편하였다.

그러나 일군들은 인민들의 교통상 애로를 알고있으면서도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무궤도전차를 놓는데 필요한 자재와 시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전차의 생산보장대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그러다나니 협의회시간이 퍼그나 흘러갔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안에 있는 후방기지들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이 느끼는 생활상불편을 풀어주기 위한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고서야 협의회를 결속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조직하신 이날의 협의회는 일군들의 가슴에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깊이 새겨준 의의깊은 협의회였다.

본사기자 강원남

# 인류가 심장으로 부르는 위대한 태양의 노래

##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

자주시대의 태양으로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만민칭송의 찬가가 년대와 세기를 이어 끝없이 울려퍼지는 속에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 공연이 12일 평양시내 극장, 음악당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친선의 정을 안고 머나먼 대륙과 대양을 넘어 축전장으로 달려온 여러 나라의 국제국내콩클수상자들, 명배우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은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희세의 천출위인들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였다.

출연자들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전쟁과 예속이 없는 새 세계를 건설해나가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된 다채로운 종목들로 공연무대를 뜻깊게 장식하였다.

축전조직위원회 성원들,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손님들이 공연을 보았다.

### 평양대극장에서

로씨야 월리나야 스페뻬 까자크예술단, 벨라루씨국립음악아까데미야극장 고전발레단, 라오스국립예술단, 몽골전군협주단, 에스빠냐 올리멘꼬민속음악단,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이 평양대극장에서 있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여러번 참가하여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몽골전군협주단의 예술인들이 부르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의 선률이 장내에 울려퍼지자 관람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세계자주화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마음들이 비끼는 칭송의 노래인것으로 하여 몽골예술인들의 합창은 관중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몽골가수는 노래 《몽골의 아침》을 독창으로 특색있게 형상하여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로씨야 월리나야 스페뻬 까자크예술단 예술인들은 합창 《술을 지나서》, 《구름진 하늘아래서》, 남성군무 《훈련》, 무용 《돈 까자크들》 등 민족적정서가 넘치는 노래, 무용들로 까자크들의 용감성과 락천적인 생활감정,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잘 보여주었다.

그들은 자나깨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안녕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 《불타는 소원》을 절절하게 불러 관중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다.

벨라루씨국립음악아까데미야극장 고전발레단의 무용수들도 고전 및 현대발레형식을 배합한 진실한 연기로 발레 《고독》, 발레극 《돈 끼호떼》 중에서 《바첼》의 주제사상적내용을 잘 부각시켰다.

라오스예술인들은 무용 《방아춤》, 노래와 무용 《라오스의 피리소리》로 공연무대를 이채롭게 하였다.

녀성독창가수는 우리 인민 모두가 심장으로 부르는 송가 《수령님 밤이 깊었습니다》를 훌륭히 형상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에스빠냐 올리멘꼬민속음악단의 예술인들은 남성독창과 무용 《새벽에》, 무용 《희망의 춤》에서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펼쳐보이었다.

재일조선인예술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력사로 무궁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강산에 태양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영원히 울려갈 일념안고 음악무용종합공연 《태양의 노래는 영원하리라》를 성의껏 준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민족의 어버이로, 자애로운 스승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실 충정의 마음이 반영된 노래와 무용 《백두산 상상봉에서 부르는 노래》, 남성독창 《아 수령님》, 녀성독창 《조국을 노래하네》 등의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태양의 열과 정으로 재일동포들의 삶을 꽃피워주시고 봄날의 해빛같은 미소로 총련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못 견디게 그리워 격정에 복받쳐 노래하는 동포예술인들의 모습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관람자들은 재일동포들을 한집안식솔로 따뜻이 품에 안아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없는 혈육의 정, 숭고한 동포애가 있어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자랑떨치는 총련의 오늘이 있음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동포예술인들은 어려워도 힘겨워도 사회주의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일편단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재일동포들의 철석의 의지를 남성독창 《조국은 원수님》, 설화와 합창 《원수님 따라 총련앞으로》에 담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2인무 《피줄도 하나》에서 동포예술인들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을 잘 보여주었다.

### 봉화예술극장에서

로씨야 엠.에.빠뜨니쯔끼명칭 국립아까데미야민속합창단, 로씨야 첼랴빈스크국립우랄무용단, 일본 일조음악예술교류회 독창가, 재중조선인예술단,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성악가는 봉화예술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하였다.

지난 시기 여러차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공연을 진행한 남다른 긍지를 안고있는 로씨야의 합창단예술인들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기쁨을 아름다운 가사와 선률, 춤가락에 담았다.

강철의 담력과 배짱, 특출한 령도력으로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며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로씨야예술인들의 흠모심은 합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에서 뜨겁게 분출되였다.

합창 《로씨야의 서정민요》, 《까츄샤》에서 출연자들은 풍만한 성량과 째인 앙상블로 로씨야인민의 조국애와 락천적인 생활을 형상하여 오랜 력사를 가진 관록있는 예술단체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로씨야 첼랴빈스크국립우랄무용단 예술인들은 《마부들》, 《귀족아씨》, 《비엔까》 등 여러 현대무용들과 민속무용들을 통하여 자기들의 높은 예술적기량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박력있고 경쾌한 선률에 맞추어 아름답고 우아한 률동과 재치있는 기교로 로씨야인민의 민족적정서를 보여주는 무용수들의 열정에 넘친 모습은 공연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일본 일조음악예술교류회 녀성가수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애국헌신의 길을 걷고걸으시며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천만군민의 불타는 마음을 반영한 노래 《인정의 세계》를 조선말로 류창하게 불러 관중의 절찬을 받았다.

태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구가한 재중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은 축전무대를 의의있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신뢰의 정과 존엄높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녀성독창 《오직 한마음》, 《내 심장의 목소리》, 혼성중창 《조국찬가》, 남성독창 《위대한 사랑의 길》, 혼성2중창 《내 마음 언제나 그이곁에》 등의 종목들은 장내에 위인칭송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몸은 비록 멀리에 있어도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안고 조국인민들과 숨결을 같이하려는 재중동포들의 의지가 남성독창 《조선아 다시 안아보자》, 노래와 무용 《장백송》, 《가리라 백두산으로》에 세차게 맥박쳤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성악가도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우리 조국의 전변의 모습을 반영한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흥취나게 불러 장내를 들끓이게 하였다.

###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음악당에서

벌가리아가극가수일행, 뽈스까독창가일행, 끼쁘로스음악단, 뽀르뚜갈지휘자의 공연이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음악당에서 있었다.

출연자들은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천만의 심장이 터쳐올린 절세의 위인찬가들과 시대의 명곡들로 공연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다.

전인민적송가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를 독창으로 형상한 벌가리아녀성가수는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시고 인류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벌가리아남성가수와 뽈스까독창가들도 《부리아》, 《다시는 그리지 말아다오》를 비롯한 명곡들과 조선노래 《산으로 바다로 가자》, 《사랑하노라》, 《간절한 마음》을 불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끼쁘로스음악단 예술인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20세기를 자주의 세기로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천만년길이 칭송하려는 심정을 담아 아름다운 시어와 선률을 고르고 다듬어 창작형상한 관현악과 노래 《주체가 가리키는 빛발》, 《우리의 아버지》로 장내를 끓어번지게 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인류사상사와 반제투쟁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과 국적,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심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뽀르뚜갈지휘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노래한 관현악 《발걸음》을 훌륭히 지휘하였다.

그는 《라데쯔끼행진곡》 등 여러 관현악곡들도 재치있고 매력있게 지휘하여 작품의 예술적품격을 높여주었다.

피부색과 언어,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불세출의 대성인들의 위대성을 노래하려는 하나의 념원을 안고 머나먼 길을 달려와 축전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는 예술사절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환호와 뜨거운 박수로 따뜻한 인사를 보내였다.

### 평양교예극장에서

평양교예극장에서는 로씨야국가교예회사교예단, 로씨야 모스크바볼쇼이국립교예단, 벨라루씨국립교예단, 타이요술단, 싱가포르요술가의 공연이 진행되였다.

《평양축전가》 노래선률이 경쾌하게 울리는 속에 여러 나라 배우들이 입장하자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였다.

공연은 로씨야국가교예회사교예단의 체력교예 《모자재주》로 시작되였다.

여러급의 교예축전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로씨야국가교예회사교예단, 로씨야 모스크바볼쇼이국립교예단의 배우들은 재치있고 빠른 동작으로 세련된 기교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체력교예 《공치기》, 《공재주》, 《어깨장대》에서 출연자들이 로씨야인민의 용감성과 락천성을 보여주며 난도높은 동작들을 완벽하게 수행할 때마다 관람석에서는 환성이 터져나왔다.

공중에서의 재주와 섬세하면서도 유연한 동작들로 일관된 체력교예 《공중롤돌리기》는 관람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벨라루씨교예배우도 체력교예 《발재주》에서 자기의 특기를 잘 보여주었다.

관중과 교감하며 대담한 착상과 능숙한 솜씨로 황홀한 요술의 세계를 펼치는 타이요술단, 싱가포르요술가의 출연으로 공연분위기는 더욱 이채를 띠였다.

관람자들은 순식간에 벌어지는 신비한 조화에 연방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랑만과 희열이 넘치는 교예공연은 4월의 봄명절을 맞이하는 관람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전해가려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격정의 노래, 흠모의 송가들은 태양조선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관람자들이 출연자들에게 꽃다발, 꽃송이들을 안겨주며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공연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재일조선인예술단의 노래와 무용 《백두산 상상봉에서 부르는 노래》

로씨야 엠.에.빠뜨니쯔끼명칭 국립아까데미야민속합창단의 합창 《로씨야의 서정민요》

몽골전군협주단의 남성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뽀르뚜갈지휘자의 관현악지휘 조선노래 《발걸음》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2일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조국과 민족의 흥성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또한 이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과 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대표부 성원들이 12일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 등의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제20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할 외국손님들과 재중동포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2일 알베쎄이 포지쯔끼 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위원회 위원장과 일행, 당정치국위원인 반제련대성 비서 마리아 뻬레쓰 빤또하 바르게뇨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인민공산당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으로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였으며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손님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용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민주꽁고공산당대표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민주꽁고공산당대표단을 위하여 12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쎌베르 보스와 이쎄룸베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꽁고공산당대표단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 관계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 폐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지난 5일에 개막되였던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이 폐막되였다.

콩클참가자들은 자기들의 재능과 높은 예술적기량을 남김없이 펼쳐보임으로써 우리 인민과 세계의 음악애호가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으며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하는 평양의 분위기를 더욱 이채롭게 하였다.

콩클폐막식이 12일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였다.

폐막식에는 콩클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문화상 박춘남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중앙예술단체, 예술교육기관의 창작가, 예술인, 교원, 학생들, 시내근로자들과 콩클입상자들, 외국의 예술인들, 국제심사원들, 명예손님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폐막식에서는 먼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예술인들에게 컵, 메달, 상장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김정주(조선)가 1등을, 바야르싸한 바뜨쟈르갈(몽골), 리 스따니슬라브(까자흐스딴)가 2등을, 서은향(조선), 류금철(조선), 마르께로쨘 마리안나(아르메니아)가 3등을 쟁취하였다.

바싼쑤렌 엔흐나란(몽골)과 까쎄쉬스끼흐 끼릴(까자흐스딴)에게 기술상과 연기상이 수여되였다.

문화상 박춘남동지가 폐막사를 하였다.

그는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이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피바다》식 5대혁명가극의 노래들을 비롯한 조선의 명곡들과 세계명곡들을 훌륭히 형상하여 이번 콩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수상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콩클기간 모든 참가자들이 예술적기량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성악발전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나라와 민족, 언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친선의 정을 두터이한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에게 성악예술에 대한 리해를 더욱 풍부히 해주고 기쁨을 안겨준 전체 참가자들에게 사의를 표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양국제성악콩클이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 예술인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며 인류음악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앞으로의 평양국제성악콩클들에 참가하여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콩클폐막을 선언하였다.

《빛나는 조국》의 노래선률이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콩클기발이 내리워졌다.

폐막식이 끝난 다음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입상자들의 공연이 있었다.

태양절을 맞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콩클은 인류음악예술발전을 추동하고 나라들사이의 문화예술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2203호

주체107(2018)년 4월 7일

##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3중3대혁명붉은기**

서창수산물상점

**2중3대혁명붉은기**

평양베아링공장 공무동력직장
모란봉구역도로시설관리소 가로제4작업반
평천구역종합식당 봉남국수집
덕천탄광 생필직장
대관군 대안협동농장 제1작업반
온천군의약품관리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내화물직장
라진봉사관리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촬영직장

**3대혁명붉은기**

력포구역 류현남새전문협동농장
문수궤도전차사업소 운영1대대
대동강구역종합식당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신립화학공장
성천제사공장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생필직장
송남청년탄광 공무직장
구성시 청송협동농장 종축작업반
통동공업대학
조옥희해주교원대학 교육1학부
정산군산림경영소 해월지구분소
자강도정보통신국
강계시위생필공장
자강도소아병원
판교림산사업소 룡담림산작업소
정흥군송배전소
회령시 대덕농장 청년분조
온성군 동포협동농장 제5작업반
정평군 동호협동농장 제4작업반
신포시 풍중협동농장 남새제1작업반
금야청년탄광 축산작업반
김정숙군도로보수관리대 평성령청년관리소대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제13작업반
고무산청년역
홍의역
북창철도합숙
인민봉사총국 옥류2식당
봉화통전기재기술교류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 창광산호텔에 2중3대혁명붉은기 수여

창광산호텔에 2중3대혁명붉은기가 수여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호텔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외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12일에 진행된 수여모임에는 관계부문, 호텔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표창장과 기발이 수여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데 대하여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감으로써 대외봉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6돐에 즈음하여

##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진행

태양절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가 1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서곡 《태양절을 노래하세》, 《만경대 찾아가네》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설화시 《만경대 고향집 사립문앞에서》, 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대화시 《우리 수령님과 태양절》, 혼성2중창 《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녀성독창과 합창 전인민적송가 《충성의 노래》, 금관4중주 《백두의 말발굽소리》, 남성독창 《아버지라 부릅니다》, 극이야기 《500만의 신념》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바치시여 우리 식 사회주의가 영원히 강성번영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정치, 군사, 경제적토대를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관람자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려온 김일성민족의 영광스러운 행로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해만가는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설화와 남성기타병창 《그이의 리상》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받드시고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헤쳐가신 멀고 험한 초강도강행군길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린 사회주의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여갈 주체혁명위업계승자들의 드높은 열의가 재담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가무와 민족기악중주 《우리 민족 제일일세》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분출되였다.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나아갈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억척불변의 신념을 힘있게 보여준 공연은 종곡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끝났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

## 녀맹예술소조원들의 경축공연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경축 녀맹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이 12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춘실동지, 관계부문, 녀맹일군들과 시안의 녀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시와 노래 《태양절을 노래하세》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4중창과 합창 전인민적송가 《충성의 노래》, 독창과 방창 《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네》, 중창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 독창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시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받아안은 수령복, 장군복에 대한 더없는 영광과 긍지감으로 가슴벅차게 하는 중창 《수령님과 장군님은 한분이시네》, 5중창 《장군님은 우리 어버이》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주체의 강대국으로 세계에 우뚝 올라서고있음을 노래한 독창과 합창 《아버지라 부릅니다》, 기타병창 《우리를 부러워하라》, 3중창 《복받은 인민의 노래》, 장고병창 《바다 만풍가》는 장내를 뜨거운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시와 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로 막을 내린 공연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온 나라 녀성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 제3차 사탕, 과자조각전시회 진행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제3차 사탕, 과자조각전시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청류관에서 진행되였다.

인민봉사부문과 대외봉사부문, 식료공장부문으로 나뉘여 진행된 전시회에는 60여개의 단위들에서 창작한 790여종에 2 260여점의 사탕조각과 과자조각들이 출품되였다.

각지 료리사들과 기능공들은 평시에 련마해온 기술과 기교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당의 은정속에 누려가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의 주인공들, 동식물, 자연풍경 등 다양한 주제의 사탕, 과자조각물을 여러가지 형상수법으로 만들어내놓았다.

섬세한 세공기술로 대상의 특성들을 잘 살린 《팽이》, 《강냉이수확》, 《철갑상어》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탕조각들로 우리의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자랑을 실감있게 펼쳐보인 옥류관과 산뜻하고 고상한 색채로 식용적, 감상적가치가 있는 의인화된 동물조각상들을 출품한 청류관전시대들은 전문가들과 참관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재료선택으로부터 포장용기에 이르기까지 손색이 없는 해방산호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평양곡산공장, 금성식료공장의 사탕, 과자조각들은 맛있고 영양가높으면서도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한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기발한 착상과 재치있는 기교로 자기 지방의 특성을 엿볼수 있게 창작형상한 각 도종합식료공장들의 갖가지 전시품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의 사탕, 과자조각기술수준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

숙련된 솜씨로 지정된 시간내에 조각물들을 훌륭히 만들어내는 우수한 료리사, 기능공들의 시범출연도 진행되여 전시회분위기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전시회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상장과 증서, 메달이 수여되였다.

보다 윤택해질 우리의 식생활문화와 문명수준을 잘 보여준 이번 사탕, 과자조각전시회는 아름다운 생활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풍만한 정서와 기쁨을 안겨주었다.

## 송화미술전람회 개막

태양절경축 송화미술전람회가 12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로화가들이 창작한 조선화, 유화, 수채화 등 60여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아크릴화 《만민의 축원》이 전람회장 중심에 정중히 모셔져있다.

주체의 태양, 백두광명성이 솟아오른 민족대통운의 날들과 더불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환희와 격정을 진실한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한 유화 《1912년의 만경대 고향집》, 조선화 《정일봉》을 비롯한 작품들이 있다.

판화 《은정넘친 황금해》, 수채화 《용해공》 등의 작품들은 위대한 태양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날이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과 인민의 행복넘친 모습을 잘 보여주고있다.

삼천리금수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양하고 세련된 기법으로 특색있게 형상한 유화 《칠보산 강선폭》, 《금강산의 기암절벽》을 비롯한 작품들도 전시되여있다.

관계부문 일군들, 미술창작기관, 교육기관 창작가, 교원, 학생들, 시내근로자들이 전시된 미술작품들을 돌아보았다.

###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 만경대 방문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12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 주조 무관단

## 제20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12일 제20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지성에 떠받들려 아름답게 피여난 위인칭송의 명화를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김도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은 축전장을 참관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의 해방과 사회주의건설위업에 이룩하신 업적 그리고 자기 수령에 대한 조선인민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잘 알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조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행복의 노래를 담아싣고 끝없이 흐르라, 락원의 강 보통강이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시구획안의 강하천들은 호안정리와 유보도공사를 현대적추세에 맞게 잘하며 그 주변을 공원화, 유원지화, 수림화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보통강반을 돌아보았다. 번듯하게 정리된 장산소하천과 더불어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종전보다 훨씬 밝아진 보통강과 희한하게 일떠선 체육촌이며 곳곳에 있는 물새들의 보금자리였다.

### 대동강의 맑은 물이 흘러든다

수수천년 흐르던 보통강이 자기 흐름을 바꾼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건국의 첫삽을 뜨신 보통강개수공사때부터이다. 눈물의 강, 원한의 강으로 불리워오던 보통강이 그때부터 락원의 강, 행복의 강으로 전변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 보통강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시기 위해 대동강의 물이 보통강으로 흘러들게 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시당위원회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여러가지 실무적인 대책들을 취해주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시안의 청년들로 돌격대를 뭇고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왔다. 돌격대원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짧은 기간에 수백m의 물길굴을 관통하고 수백m의 합도랑공사를 끝내는것과 함께 여러 구조물공사와 설비조립을 결속하고 지난 3월 중순 첫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수수천년 자기 곬을 따라 흐르던 대동강물이 보통강으로 흘러드는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지금 보통강으로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가슴뜨거운 전설을 전하며 매일 수십만㎥의 대동강 푸른 물이 생명수마냥 흘러들고 있다.

### 물새들이 날아든다

보통강에 희한한 풍경이 펼쳐졌다. 올해초부터 금란도와 은하도, 동각도와 보도주변에 례년에 볼수 없었던 수많은 물새들이 날아들었다.

보통강의 가는 곳마다 떼를 지어 날아든 물새들을 보며 오가는 사람들은 보통강이 천지개벽되니 물새들도 보금자리에 찾아들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지난해 가을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문제를 놓고 진지한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토의된 수많은 문제들중에 물새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것도 중요한 안건으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보통강유원지경치에 손색이 없도록 물새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오리나 고니같은것들을 많이 놓아기를데 대하여 주신 교시에 따라 보통강에는 이미 물새들의 보금자리들이 마련되여있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시기 여러가지 문제들로 물새들의 보금자리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히 토의하고 짧은 기간에 물새들의 보금자리를 훌륭하게 마련할 방도들을 토의하였다.

그리하여 시원림관리국과 보통강구역, 평천구역일군들이 책임지고 물새들의 보금자리를 만들데 대한 분공이 조직되였다.

과업을 받은 일군들은 즉시 건설력량을 조직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지난해말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40여일만에 물새들의 보금자리를 훌륭하게 마련하였다. 이렇게 되여 보통강의 여러 섬들에 태양빛전지판까지 설치된 물새들의 새 보금자리가 생겨나게 되였다.

### 행복의 물결이 굽이친다

봄을 맞아 실버들 휘우러진 보통강반에 생의 희열을 마음껏 느낄수 있는 류다른 정서들이 펼쳐지고있다. 훌륭하게 꾸려진 체육장들마다에서 배구와 바드민톤경기로 열이 오른 청춘남녀들과 강변에 낚시대를 드리운 애호가들의 모습도 볼만 하지만 어깨성을 쌓고 장기군들의 훈수를 드는 구경군들의 목소리까지 울리니 보통강반이 더욱 흥성인다. 어둠이 깃들자 새로 정리된 장산소하천의 정원등불빛이 출렁이는 물결우에 반사되여 류다른 정서를 불러오고있다. 장산소하천의 이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한것은 지난 3월말이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보통강에 대동강의 맑은 물이 흘러드는데 맞게 유보도의 면모를 일신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웠다.

3.2㎞구간에 대한 강탕파기와 석축공사, 잣돌설치, 겹음집블로크깔기를 비롯하여 유보도정리는 그야말로 아름찬 과제가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시당위원회에서는 이 과제를 열흘동안에 해제낄 목표를 세웠다. 시당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장산소하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강력한 지휘부가 꾸려졌고 서성구역과 모란봉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투장에 달려나왔다. 모든 공사가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공사장마다에 붉은기들이 휘날렸고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온 전투장을 진감했다. 전투가 시작된지 불과 한주일만에 수천㎥의 강탕파기와 근 2천㎥의 콩크리트치기, 7천 수백㎥의 흙둔쌓기, 1만 수천㎥의 겹음집블로크깔기와 백수십개의 정원등설치를 전부 끝내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참으로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속도창조자들은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 보통강을 락원의 강, 행복의 강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리였다.

오늘도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의 구슬땀과 창조의 노래를 담아싣고 보통강의 맑은 물은 끝없이 흐르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수복

##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도착

리기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1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동지와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김진국동지가 맞이하였다.

##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와짐 꾸지민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대표단, 비카트 울라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파키스탄주체연구회대표단, 마니크 라마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네팔선군정치지지협회대표단, 피를 모함마드 아샤불 카림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글라데슈선군정치연구소조대표단, 릴라 마니 포크렐을 단장으로 하는 네팔자력갱생연구회대표단, 로베르또 제씨를 단장으로 하는 자주와 주권을 위한 선군사상연구 이딸리아위원회대표단, 루까슈 브로벨을 단장으로 하는 체스코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대표단과 스또얀 도체브 벌가리아주체사상연구대표가 1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해외연고자가족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주보중가족일행,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김순옥, 서순옥가족일행이 12일 비행기와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한편 이날 최문식 중국연변혁명유적지보존연구회 회장이 왔다.

## 총련의 방문단들 도착

박해철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과 홍영철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수해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이 1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김진국동지가 맞이하였다.

## 민주콩고공산당대표단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씰베르 보스와 이메꼼배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콩고공산당대표단이 1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가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주보중가족일행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김순옥가족일행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서순옥가족일행

최문식 중국연변혁명유적지보존연구회 회장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민주콩고공산당대표단

# 세계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시대의 력사적과제

국제정세는 복잡다단하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과 분쟁이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인류가 념원하는 새 세계건설은 도전에 부닥치고있다.

현실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짓부시고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계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며 시대의 력사적과제입니다.》**

자주화된 세계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이 없는 세계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세계이다.

세계의 자주화는 어느 개별적인 나라의 투쟁만으로 실현될수 없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때에만 이룩될수 있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세계자주화위업수행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자주성을 위한 개별적인 나라 인민의 투쟁이 한 나라, 한 민족의 범위에서 벌어지는 민족적위업이라면 세계자주화를 위한 투쟁은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을 위한 국제적위업이다.

세계자주화는 개별적나라들의 자주성이 실현되고 그것이 세계적범위에로 확대되여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여나가게 된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여있다. 개별적나라 또는 일부 지역에서 자주화가 실현되였다고 하여도 세계에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이 존재하고 그들에 의해 침략과 전쟁이 계속되는 조건에서는 공고한것으로 될수 없다.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조건,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는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만약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바라거나 남의 처방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은 고사하고 지배와 예속의 멍에를 쓰게 된다.

동유럽나라들에서 련이어 사회주의기발이 내리워진것은 이 나라들이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지 못한 결과이다. 력사의 교훈은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는 나라들이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자주성에 기초한 나라들사이의 국가관계수립은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철저히 행사하여야 한다. 매개 나라와 민족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자기것을 다른 나라에 내리먹이는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내정간섭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권유린행위이며 건전한 국가관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현상이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은 외세의 온갖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며 남의 풍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도 말고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들의 평등과 자주권이 보장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세계자주화위업은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떠나서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처한 제국주의자들은 그로부터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침략성, 호전성을 더욱 드러내고있다.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모든 진보적력량이 반제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제국주의자들에게 투쟁의 창끝을 돌려야 한다.

미제는 세계평화와 안전의 교란자, 파괴자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의 주타격대상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기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세력의 횡포한 지배와 간섭책동에 의하여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되고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더이상 허용되고 묵인되여서는 안된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정견과 신앙, 경제 및 문화발전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국제적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힘이 강할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나라들은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주의 새 세계를 앞당겨와야 한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단결은 위력한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지배주의야망을 이루어보려고 서로 공모결탁하여 자주력량을 공격해나서고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은 단결의 원칙에서 나라들사이에 존재하는 의견상이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풀어나가며 어떤 경우에도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분렬리간, 분쟁조장책동에 속아넘어가거나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단결된 힘으로 짓부셔버려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지난 기간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는것을 숭고한 국제적임무로 간주하고 힘있게 투쟁하여왔다. 우리 국가의 이러한 노력은 많은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세계자주화를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리 현 도

# 태양절은 진보적인류의 가장 큰 명절

##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 성명 발표

태양절에 즈음하여 베닌사회주의당이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각하의 탄생 106돐을 뜻깊게 경축하는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무장투쟁으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자주, 자립, 자위로 위용떨치는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자주시대를 개척하시고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신 그이께서는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실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국력과 존엄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굳건히 수호되고있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스위스, 영국단체들이 1일과 4일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김일성주석탄생 106돐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공동성명은 올해의 태양절은 보다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칭송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인민을 위한 모든 시책들은 그이께서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신 이민위천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주석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인민의 행복과 조국통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해 드팀없이 계승되고있다.

오늘 태양절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가장 큰 명절로 되고있다.

태양절경축 영국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실뿐아니라 세계혁명의 걸출한 스승이시다.

그이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나라를 해방하시고 미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강철의 령장이시며 조선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그이의 유산인 사회주의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수호되고있다.

우리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조선중앙통신】

# 정치시정배들의 열띤 집안싸움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제선거가 다가오는 속에 《바른미래당》의 내부가 편안치 않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지방자치제선거후보자추천문제를 놓고 심각한 내부갈등에 시달리고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장후보문제를 둘러싸고 아귀다툼이 벌어졌다. 흉물하기 짝이 없는 류승민의 패거리들은 안철수의 당선가능성이 낮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가 서울시장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고아댔다. 안철수가 선거에서 패하는 경우 스스로 정계일선에서 물러서게 만들려는것이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파는 그들대로 《바른미래당》의 공동대표인 류승민도 선거에 나가야 한다고 역공세를 폈다. 한편 중립파것들은 그럴바에는 안철수와 류승민이 모두 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동반출마성명서》라는것까지 들고나왔다.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바른미래당》의 각 정파들이 서울시장후보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이 당의 갈등과 대립은 한층 격화되였다.

안철수파와 류승민파, 중립파가 당후보추천관리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를 장악하려고 꾀하고있는것도 《바른미래당》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지금 안철수파와 류승민파, 중립파는 저마끔 이번 지방자치제선거를 자파세력확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으면서 당후보추천관리위원회의 요직들에 저들과 인맥관계가 있는 인물들을 들어앉히기 위해 옥신각신하고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놓고도 마찬가지이다. 안철수파는 선거대책위원장을 안철수가 맡아야 한다고 우기는 반면에 다른 계파들은 안철수에게 선거를 지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해나서고있다.

당후보추천관리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의 요직을 놓고 벌어지는 안철수파와 류승민파, 중립파의 갈등이 지방자치제선거이후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추악한 개싸움질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의 벙거지를 쓰고있는 안철수는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인물들을 당에 받아들이며 적폐잔여세력을 긁어모으고있다. 이것이 지지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안철수의 계책에 따른 움직임으로 평가되면서 류승민파의 불만과 위구심은 더욱 커가고있다.

저들에게 불리한 선거형세가 좀처럼 역전될 가망이 보이지 않자 류승민은 지금처럼 보수가 분렬되어서는 선거에서 패할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선거련대를 주장해나섰다. 이자는 《그 어떤 정당과도 선거련대는 없다.》는것이 당론으로 채택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선거련대가능성》이니, 《부분적야권련대》니 하고 떠들어댔다. 남조선언론들은 류승민이 《자유한국당》과의 선거련대를 주장한데 대해 지방자치제선거에서 패하고 당권장악에서도 실패할 경우 정치적적수인 안철수와 결별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려는 술책이라고 보도하고있다.

문제는 류승민의 이런 계책이 당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는데 있다. 안철수파와 중립파는 류승민에 대한 맹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경쟁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이라고 하면서 류승민의 주장을 완강히 반대하고있다. 《바른미래당》의 다른 의원들도 《자유한국당》과의 선거련대에 대해 당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것으로서 선거결과가 더 나빠질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선거련대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고 반발해나서고있다. 결국 류승민은 《자유한국당》과의 선거련대론을 들고나왔다가 뭇매를 맞았다.

사태가 심각하게 번져지자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과의 선거련대를 더이상 론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 당의 각 계파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쉽사리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다.

아직도 대세를 판별하지 못하고 권력싸움에 미쳐날뛰는 《바른미래당》것들이야말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민심을 등진 사이비정객들은 인민의 증오와 버림을 받기 마련이다.

민심의 지향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집안싸움에 열을 올리는 《바른미래당》것들에게 남조선 각계는 침을 뱉고있다. 그런즉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며 정쟁에만 눈이 새빨개 돌아치는 《바른미래당》의 시정배들이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본사기자 심 철 영

# 죄악의 신기록보유자

박근혜야말로 저지른 죄악의 항목과 내용에 있어서나 그 후과에 있어서나 지난 시기 악명을 떨친 력대 남조선집권자들과 대비조차 할수 없는 신기록을 보유한 천하악녀이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감옥에 처박힌 박근혜역도가 집권기간 저지른 범죄행위들의 진상이 련속 드러나 사회 각계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력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역도가 《국정력사교과서》도입을 제멋대로 결정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력사교과서《국정화》를 강행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박근혜역도는 저들의 파쑈독재통치를 정당화하고 《정권》안보를 실현할 심산밑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력사교과서《국정화》를 고안해냈다. 역도는 력사교과서《국정화》를 위한 15가지 항목을 작성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하수인들을 내몰아 력사교과서《국정화》를 강행하였다.

박근혜역도의 지시를 받은 교육부패거리들은 《국정교과서제》를 찬성하는 기고문을 비롯한 글들을 내면서 력사교과서《국정화》지지여론전을 벌렸다. 박근혜일당은 력사교과서《국정화》를 위한 비밀단체들까지 조직하고 교과서편찬과 내용수정을 비롯하여 세부사항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실행하였으며 편찬심의위원들을 저들의 앞잡이들로 선정하였다.

뿐만아니라 력사교과서《국정화》실현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고엽제전우회》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을 내몰아 찬성집회와 시위를 벌리도록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박근혜역도가 로동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악랄하게 침해하는 반역정책들을 한사코 실행하기 위해 비밀기구를 내오고 몰래 운영한 사실이 고용로동행정개혁위원회에 의하여 드러났다.

고용로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밝힌데 의하면 박근혜패당은 2015년 고용로동부 차관직속으로 로동시장개혁상황실이라는 비밀기구를 설치하고 1년동안 운영하였다. 로동시장개혁상황실은 박근혜《정권》의 반인민적인 로동악정을 미화분식하는 비렬한 선전놀음을 벌리면서 그를 반대하는 로동운동단체들과 야당들을 압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였다. 박근혜패당은 보수단체들을 동원하여 《정부》의 로동악정에 반발하는 로동운동단체는 물론 야당들까지 비난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들을 매수하여 저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폭로된데 의하면 박근혜역도는 청와대를 직접 내세워 건당 1 000만원씩 주고 저들의 로동정책실현을 위한 보도기사들을 싣도록 하였으며 《MBC》방송사의 어느 한 편집물에 대해서는 그 토론주제와 구성문제에까지 개입하였다. 이 과정에 박근혜패당은 무려 100억여원이나 되는 인민들의 혈세를 마구 탕진했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초불시위투쟁이 대중적으로 전개될 당시 역적패당이 평화적인 시위참가자들을 총기를 사용하여 진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담긴 《청와대시위집회대비계획》이라는 문건까지 공개되여 민심의 분노는 절정에 달하고있다.

박근혜역도가 저지른 죄행들이 계속 드러나자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은 《소름이 끼치는 경악할 일이다.》, 《권력을 악용하여 력사마저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그러나 유독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박근혜가 불쌍하다.》느니, 《박근혜는 죄가 없다.》느니 하고 역도를 비호두둔하며 민심의 지향과 요구에 도전해나서고있다.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자들인가.

돌이켜보면 력사는 반역과 패륜패덕으로 악명을 떨친 남조선의 정치시정배, 악한들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다. 하지만 박근혜역도와 같은 극악무도한 파쑈폭군, 부정부패의 왕초는 일찌기 없었다. 박근혜야말로 제 애비 박정희역도와 더불어 오욕과 치욕, 반역과 폭정, 부정부패와 무지무능의 대명사로 력사의 한페지를 수치스럽게 기록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당도 박근혜역도와 한짝이 되여 온갖 특대형범죄행위들을 저지른 공범자무리이다. 력대로 남조선인민들에게 모진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범죄집단일뿐아니라 《유신》독재자의 피를 이어받은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 올려앉히고 역도의 《국정》롱락범죄를 묵인조장한 《자유한국당》패들도 마땅히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라서야 한다.

박근혜와 함께 무덤속에 처박혀야 할 보수패당이 지금 역도를 비호두둔하면서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재집권야망을 이루어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는것은 남조선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도전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헤아릴수 없는 해악을 끼친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그 공범자무리인 《자유한국당》을 가차없이 징벌할 의지를 안고 반보수, 적폐청산투쟁을 더욱더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엄 수 련

# 중국외교부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것을 일본에 요구

중국외교부 대변인 경상이 9일 정기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최근 일본방위성 부상이 《수륙기동단》창설은 자국의 섬들을 지키려는 일본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며 날로 악화되고있는 안전추이에 비추어볼 때 《섬방위》는 방위성의 중요한 임무라고 한것과 관련하여 일본이 이웃나라들의 안전리익과 우려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력사적원인으로 하여 일본의 군사적동향은 줄곧 아시아나라들의 보편적인 관심을 모았다고 하면서 중국은 일본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리로운 일을 많이 하며 그와 상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이란외무성 미국과 서방의 반수리아음모책동 폭로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8일 수리아가 이스턴 고우타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는 미국과 서방의 주장을 배격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수리아정부를 반대하는 새로운 음모이고 군사적간섭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는 수리아군이 테로분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있는 때에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고 비난하는것은 론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의 주장과 군사적간섭책동은 수리아와 지역의 정세를 악화시킬뿐이라고 하면서 화학무기사용을 반대하는 이슬람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을 재천명하였다.

# 반테로투쟁에서 협조할것을 호소

알제리외무상 아브둘까디르 무싸힐이 9일 수도에서 진행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아프리카나라들이 테로반대투쟁에서 협조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금 테로조직들에 대한 재정적지원원천들에는 마약 및 무기밀수, 인신매매, 사기협잡, 돈세척 등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원천들을 막자면 국제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특히 아프리카나라들이 그와 관련한 대륙적인 전략을 작성하고 실현하는데 달라붙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일함 알리예브 아제르바이잔대통령으로 재선

아제르바이잔에서 일함 알리예브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그는 11일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다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한다.

# 미국과 일본의 군사연습소동

미해병대와 일본륙상《자위대》산하 《수륙기동단》이 7일 일본의 나가사끼현 사세보에서 공동군사연습을 감행하였다.

외딴섬이 점령되였다는것을 가상하여 진행된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측에서 약 240명의 병력과 군사기술기재들이 동원되였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최근에 발족된 《수륙기동단》은 중국의 침공을 막을 목적밑에 주력인 수륙기동부대와 《AAV-7》을 운용하는 전투상륙부대 등 약 2 100명으로 편성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그 규모는 늘어날것이라고 전하였다.

# 이스라엘의 야수적인 탄압만행 규탄

에짚트외무성이 7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야수적인 탄압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군이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평화적시위에 떨쳐나선 적수공권의 팔레스티나인들을 살해한데 대해 단죄하였다. 성명은 국제공동체가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건을 비롯하여 팔레스티나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집요하고 악랄한 독도강탈야망

최근 일본문부과학성이 2022년이후부터 일본의 고등학교들에서 《독도령유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이라는것을 공시하였다. 이것은 섬나라오랑캐들의 독도강탈야망이 극히 엄중한 단계에로 치닫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원래부터 간특하고 악독한 기질을 천성으로 가지고있는 섬나라족속들은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해왔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처럼 악랄한 지경에 이른적은 없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은 얼마전 도꾜한복판에 그 무슨 《전시관》이라는것을 세워놓고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겨대는 철면피한 광대극을 연출하였다. 또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인식을 강제로 주입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해마다 벌려놓고있는 《다께시마의 날》행사에 올해에는 정부의 고위당국자를 파견하는 망동을 부려 우리 민족과 온 세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독도령유권》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개정안공시놀음은 날로 엄중해지고있는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한 독도강탈책동의 연장이다.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명백히 우리 민족의 령토주권에 대한 란폭한 도발이며 용납 못할 침해행위이다.

독도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이라는것은 이미 력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낱낱이 증명되였으며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최근년간에만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것을 설명해주는 일본의 지리교과서가 발견되였다. 로씨야의 한 전문가도 독도는 명백히 조선령토라고 증거를 들어가며 주장하였다. 독도가 오래전부터 우리의 고유한 령토임을 론증해주는 자료들은 계속 추가되고있다.

이런 속에 세계도처에서 독도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령토분쟁문제가 아니며 《독도령유권》을 운운하는 일본의 진짜속심은 령토팽창과 군국주의부활, 아시아재패에 있다는 단죄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일본에서도 도대체 왜 당국이 《독도령유권》에 대해 열성스레 떠들어대는가 하는 의문의 목소리가 커가고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였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내외의 규탄여론을 무릅쓰고 고등학교들에서 《독도령유권》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을 공시한것은 섬나라오랑캐들의 독도강탈야망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것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나 조선민족에 대한 재침야욕을 심어주려는 범죄적기도의 산물이다.

날로 무분별해지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은 전체 조선민족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반동들이 력사외곡과 령토팽창야망에 사로잡혀 분별없이 날뛰고있다고 하면서 낯가죽이 곰발통같은 섬나라족속들에게 량심이나 력사적책임같은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일치하게 단죄규탄하고있다. 그러면서 조상들과 저들이 저지른 죄악으로도 모자라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까지 잘못된 사실을 강제로 주입시키려는 일본당국의 망동을 용납할수 없다는 립장들을 발표하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일본반동들이 《독도령유권》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을 즉각 철회할것을 요구하여 들고일어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명심해야 한다.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로서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독도강탈야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리성을 잃고 헤덤비면서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책동에 광분한다면 차례질것은 우리 민족과 인류량심의 저주와 규탄, 수치스러운 멸망뿐이다.

리 홍 철

# 인권불모지에서 벌어진 황당한 소송사건

얼마전 미국총기협회가 플로리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플로리다주가 수천명 주민들의 총기류소유권리를 침해하였다는것이다.

앞서 미국의 플로리다주 지사는 총기류구입을 위한 최소한의 나이를 18살에서 21살로 높이는 총기류통제법안에 서명하여 법화하였다.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것은 주의 민심을 외면할수 없었기때문이다.

플로리다주에서는 2016년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야간유흥장에서의 총격사건을 비롯하여 크고작은 총기류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하여 플로리다주는 물론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도 총기류규제조치를 보다 강화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특히 지난 2월 10여명의 학생들이 살해된 한 고등학교에서의 총격사건을 계기로 총기류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고조되고있다.

미국의 곳곳에서 10대의 학생들이 총기류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렸다. 총격사건이 일어난 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이 총기류법개정과 공격용총기류판매금지 등을 요구하였다.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된 수천명규모의 집회에서 한 녀학생은 미국회에 총격사건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총기류규제를 반대하는 미국총기협회로부터 자금을 받고있는 모든 정치가들은 수치를 느껴야 한다고 웨치면서 집회참가자들의 열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플로리다주 지사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수 없게 되였다. 그래서 총기류를 구입할수 있는 나이를 이전보다 더 올린것이다. 하지만 그 조치가 플로리다주에서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총기류범죄를 막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미국총기협회는 이마저도 못마땅히 여기면서 플로리다주가 미국헌법을 위반하였으며 주민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있다고 걸고들었다. 총기류구매자가 줄어드는것만큼 리득도 적어지기때문이다. 미국총기협회가 개인의 총기류소유의 완전한 합법화를 계속 주장하고있는것도 총기류구매자들을 많이 늘이자는데 있다.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미국총기협회는 저들의 리속을 채우려는 속심밑에 총기류규제완화를 위해 끈질기게 획책하고있다.

2010년에 미련방최고재판소는 개인의 총기류소유가 누구도 침범할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리》라는 판결을 내렸다.

총기류범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것이 오늘의 미국의 현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에 쓰러지고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이 무서워 매일, 매 시각 불안과 공포속에 살아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계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있다. 오히려 황당한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미국총기협회의 활동을 비호두둔하고있다.

미국의 정객들은 대독점재벌들의 앞잡이, 꼭두각시들이다.

이번 소송사건은 황금만능사상과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만연하고있는 미국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국제사회는 인권불모지인 미국에서 총기류통제는 실현불가능하며 미국이 종말을 고하기 전에는 총기류범죄가 근절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정 원 준

ㄱ-81059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